

# 일본 정부 '고급기술 유출' 단속나섰다

일본 정부가 지적 재산권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0일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방지, 지적재산 취득관리 등 2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04년도 일본공업규격(JIS)에 반영, 각 기업의 도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방지지침에는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합작을 하거나 현지공장을 건설할 때 부품, 재료, 제조 설비, 도면 등을 통해 고급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제품의 종류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계획과 이전 방식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지적재산 취득관리 지침은 최고 경영자(CEO)가 자신의 기업이 앞서있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특허권 취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최고경영자는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사(社)내·외에 공표하고 기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원들의 발명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특허권수뿐 아니라 사원의 공헌도 등을 평가, 인사 및 보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특히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앞선 지적재산권 분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미국 인터넷 업계 특허권 주장

미국 인터넷 업계에 특허권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씨넷(Cnet) 등은 전화업체 SBC커뮤니케이션스가 웹검색 관련 기술의 특허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중소기업도 인터넷기술 개발업체들이 특허사용에 따른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기술업체는 특허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 IT업계가 소송에 휘말리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BC는 최근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는 동안 이전 사이트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웹검색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뮤지엄투어(<http://www.museumtour.com>)'를 운영하면서 자사 특허를 사용중인 IEP에 메일을 보내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SBC의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업체별로 연 527만에서 1,660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컨설팅업체 디바인이 전자상거래용 쇼핑카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악파일 전송업체 리퀴드디오는 인터넷을 이용해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쫓는 기술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기술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을 빚고 있다.

뮤지엄투어의 메릴린 아이허거 사장은 '다른 업체들도 사용중인 기술'이라며 'SBC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뮤지엄투어 웹사이트를 제작한 웹크리에이터사의 관계자도 'SBC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이용해 수백개의 사이트를 제작했다'며 '수십만개의 사이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웹 개발자들은 'SBC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지난 96년 출원됐지만 이보다 1년 전에 이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 사실을 먼저 해명해줄 것을 SBC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는 '특허관련 논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며 '특허는 기술의 개발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는 만큼 제기하는 쪽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브리티시텔레콤(BT)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인터넷 하이퍼링크 특허소송은 BT의 패소로 끝난 바 있다.

만화로 보는 발명 특이이야기 발명의 10계명 6  
모양을 바꾸어보자

김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발명의 신계명중 절반!!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모양을 바꿔보자'란다.

이렇게요? 아름다운 형상·모양으로 알아-!!

모양을 바꾼다구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울음의 형상·모양·색채는 '의장'이라는 '지식재산권'에 포함 된단다.

'의장'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마치면 특정사용이 가능한 만큼 형상·모양은 의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다.

가령 전화기를 다이얼대신 계로 든다면 피아노 형상·모양으로

다이어대신 건반을 누르는 전화기라던가

의장

오리 모양의 오리소리기 나는 전화기

자동차 모양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전화등

이 모든것은 의장 등록이 된 것들이란다.

또 형상·모양을 바꿔서 성공한 예로는 '파커'라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는 만년필의 형상·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만년필 왕이 되었단다.

의장은 물건의 형상·모양 뿐만이 아니라 옷감의 무늬·색채도 해당된단다.

아름다운 무늬 역시 '의장출원'이 가능하지.

어허 현대는 더욱 더 새롭고 다양한 모양을 추구할 것이야!!

박사님!! 오?! 진이! 진이가 질문이 있나 보구나!

에쁜 제 얼굴도 '의장출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허영~! 박사님! 고장하시을소서!

사람들이 모두 제 얼굴처럼 성형수술하는걸 막기 위해서 말이지~!

박사님!! 오?! 진이! 진이가 질문이 있나 보구나!

박사님!! 오?! 진이! 진이가 질문이 있나 보구나!

기사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2203-9460